

2009년도 육계산업 전망

2009년도 사료업계 전망



이 상 희 전무
이화팜텍(주) 특수사료부

1. 국제 사료원료 가격추세(2008년 상황정리)

2008년 사료업계는 사상 최악이라고 해야 할 불황의 한해였다. <표 1>과 같이 사료용 곡물의 폭등과 해상선임의 인상, 원화 가치의 급락으로 인한 환차손 폭탄까지 겹쳐진 3각 파도를 맞은 해였다.

미국산 옥수수는 C&F 톤당 430불 이상 치솟았고, 기타 곡류, 박류 등 모든 부원료가 급상승하여 1, 3, 5, 7, 10, 12월에 걸쳐 6회나 사료가격이 인상됐다.

대두박 가격의 급등으로 채종박, 야자박, 팜박까지 급등했고, 소맥피와 타피오카 등도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구조가 변동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화가 예상됐다.

바이오 연료의 사용증가와 이에 따른 투기세력의 투기적인 매수까지 가세되어 지속적 급등을 초래했다.

중국의 사료곡물 수출 금지 조치, 사료곡물 파종 시기에 기후 불안 등이 겹쳐 어려웠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수요감소를 일으켜서 예상치 못한 가격 변화의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2. 국제 사료원료 가격추세(2009년 전망)

2009년은 금융 위기와 경제불황의 시기가 사료원료 가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곡물시장에 투자되었던 투기성 자본들이 수요감소로 시세하락을 우려하여 빠지면서 유가하락과 함께 해상 선임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사료 원료의 가격추세

(단위 : US \$ /톤)

항목	2006평균(A)	2007평균(B)	2008.4(C)	2008.6	2008.8(D)	(D)/(A)	(D)/(B)	(D)/(C)	2009.6(예)
옥수수	143.6	211.1	299.7	435	311	117	47.7	4.0	200
소맥피	125.2	169.9	215.3	275	253	102	52.6	17.6	175
대두박	229.5	263.8	440.2	560	458	99	73.7	4.1	250
타피오카	98.7	132.9	208.9		239	142	79.8	14.4	130

2009년도 사료업계 전망

국제 곡물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가 감소되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국내의 공장별 재고가 소진되는 시기가 수요감소에 따라 회사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극심한 가격 변화가 나타나 농장과 사료회사 모두 힘든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운임이 2008년에는 GULF 기준 100~130불 대였으나 2009년은 2007년 하반기 수준이 예상되며 중국 특수도 없고,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어 큰 폭 감소도 가능하다.

2008/2009년 미국 옥수수 수급을 예상하면 3억1천만톤으로 이는 전년보다는 6% 감소된 수준이다. 따라서 재고율도 9%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작황이 호조로 돌아섰으나 장기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예전 같은 급락 대신 200불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수요 감소와 호주, 우크라이나 등의 소맥 증가, 선임 안정으로 곡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에탄올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낮은 재고율 등이 더 이상의 하락은 어려울 것 같다.

2009년 6월은 2007년 평균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여 옥수수는 200불, 대두박은 250불, 소맥피는 175불 정도를 예상해 본다.

3. 곡물 시황의 변동 요인들

일기 불안은 상존하는 변수인데 미국의 6월 홍수와 8월의 가뭄 등으로 파종이 지연되었으나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대체로 양호한 기후를 나타냈다.

투기 수요가 금융 불안에 따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하에 따라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나 국내 소비량의 증가로 수출은 힘들 것이다.

달러화의 변동, 유가의 하락세 지속 여부, 국제 펀드세력의 매수·매도구간의 변화에 따라

2009년도 육계산업 전망

2009년도 사료업계 전망

〈표 2〉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추세

(단위 : 원/kg)

항목	2006.11(1)	2007.3(2)	2008.1	2008.3	2008.12(3)	(3)/(1)	(2)/(1)
양계	279	293	342	384	504	180%	172%
양돈	372	390	427	454	578	156%	148%
낙농	293	310	344	371	492	168%	159%
비육	245	258	306	330	452	185%	175%
평균	307	321	362	392	514	167%	160%

급등의 소지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다.

4.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추세

국내 사료업계의 사료원료 실질 수입의존도는 약 95%이며 사료회사의 원재료비 비중이 약 85% 전후를 차지하므로 곡물가 인상 및 환율 상승은 치명타가 된다.

수입원료의 결제시점 차이(유산스 사용)에 따른 환차손이 환율 불안으로 크게 악화되어 10원 상승하면 5원 정도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는데, 2009년에도 이 구조는 변동이 어려우므로 경영 여건에 따라 급격한 가격인하는 늦어질 것 같다.

지난해 6차례의 사료가 인상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축산물 생산비 급증으로 농장의 수익 감소, 사료회사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졌다. 〈표 2〉와 같이 2006년 대비하면 최고 185% 인상했고, 2007년 3월에 비하면 평균 169%대

급등을 하였다.

옥수수, 대두박 사용비율이 높은 양계, 양돈만 인상폭이 큰 것이 아니라 전 축종이 모두 상승했고 2/4분기부터는 인하된 국제 곡물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축우 사료 가격의 급등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농협 사료의 이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분기 정도나 되어야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지며 그 폭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 축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료회사 간의 가격 정책이 이런 속도를 가감할 것으로 보인다.

5.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추세

2008. 1~10월 누계 생산량을 보면 2007년 대비 100.7%로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이는 비육우만 9% 증가했을 뿐 전 축종은 감소했다.

2009년도 사료업계 전망

〈표 3〉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추세 (단위 : 천톤, %)

항목	2007.1~10(1)	2008.1~10(2)	(2)/(1)%
양계	3,697(27.7)	3,605(26.8)	97.5%
양돈	4,433 (33.3)	4,375(32.6)	98.7%
낙농	1,204(9.0)	1,147(8.5)	95.2%
비육	3,171(23.8)	3,448(25.7)	108.7%
계	13,339(100)	13,428(100)	100.7%

〈표 4〉 단체별 배합 사료 생산량 추세 (단위 : 천톤, %)

항목	2007.1~10(1)	2008.1~10(2)	(2)/(1)%
사협	8,937	8,764	98.1
농협	4,150	4,498	108.4
계	13,339	13,428	100.7

낙농이 가장 많이 감소되었으며 2009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낙농 수요는 감소가 예상된다(표 3).

〈표 4〉를 보면 농협은 8% 증가했으나 사협은 2%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가격에 예민한 비육우 사료의 변화를 말하며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곡물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가 감소되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국내의 공장별 재고가 소진되는 시기가 수요감소에 따라 회사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극심한 가격 변화가 나타나 농장과 사료회사 모두 힘든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가 폭등시 85%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 사료가격의 45%에 영향을 주며 가축생산비의 20%를 좌우하고 축산물 가격에 8%의 영향을 주어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해외 사료 자원의 개발이 사료회사에 의해 진행된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나 대체 사료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개선하는 것은 시차가 있어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국내 사료자원 개발과 관세의 지속적인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5〉 축종별 생산비목의 비중

(단위 : %)

항목	산란	육계	비육돈	낙농	비육우
사료비 비중	47	55	49	53	36
가축비 비중	-	23	29	-	56
기타비 비중	-	22	22	-	8
계	100	100	100	100	100